



정교회주보

제2589호

2026년 8월 9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최후의 만찬 -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성찬의 신비이자, 우리를 한 몸으로 이어주는 교회의 일치를 보여준다.



마태오 제10주일

성 마티아 사도

(제1조 • 조과 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1조 부활 찬양송 81
 - 구세주 변모 축일 찬양송 178
 - 성당 찬양송
 - 구세주 변모 축일 시기송 178
 - 사도경 : 고린토전 4,9~16 .. (봉)202
 - 복음경 : 마태오 17,14~23 ... 114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마태오 17,20)

[31회] 데살로니카와 고린토 서신

바울로 사도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잊지 않았다. 그는 선교 여행 중 쓴 서신들을 통해 신자들의 삶을 지도했다. 데살로니카 신자들에게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데살로니카 전 5,16-18)라고 권면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독려했다.

한편, 갈등이 많았던 고린토 교회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힘이며, 지혜"임을 강조했다.(고린토 전 1,24) 또한 교회 삶의 중심인 '성체성혈성사'의 기초가 된 '최후의 만찬' 전승을 전하며(고린토 전 11,23-26),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한 몸이 될 것을 촉구했다. 바울로 사도의 서신은 단순한 편지를 넘어, 시공간을 초월해 교회를 지탱하는 영적 기둥이 되었다.

내 영혼의 빈자리

우종현 안토니오스 대신부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로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모두 거머쥔 톨스토이는 삶의 정점에 이른 어느 날 문득 깊은 허무에 빠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나의 삶은 정지되어 버렸다." 그는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겨지던 순간, 오히려 그는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영적 빈자리와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마음 한구석에는 모호한 확신과 영적인 냉랭함이 자리 잡곤 합니다. "하느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기도한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의문이 불쑥 들기도 합니다. 가끔은 "내 힘으로도 잘 사는데 굳이 신앙이 왜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일상에 충실히 살아가니, 구태여 주님이 개입하셔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없이도 평안한 것일까요? 곳곳에 곡식이 넘쳐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라고 만족하던 부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네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네가 쌓아 둔 것은

누구의 차지이 되겠느냐?"(루가 12,20) 공간이 가득 찼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영혼이 텅 비어 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은 평온해 보이지만 문득 밀려오는 알 수 없는 공허함, 마음의 상처, 막연한 불안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련까지... 이 모든 아픔은 내 힘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영혼의 빈 자리이자, 주님의 손길을 갈망하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마태오 11,28)

신앙은 단번에 거창한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고 흔들리는 것 또한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로 나아갈 때 비로소 숨 가쁜 세상살이의 중압감을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지칠 때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을 평화와 희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느님과 만날 약속 때문에...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어떤 은둔 수도사가 매우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한 번 꼭 만나 뵙고 싶다고 간절히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약속을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곧, 천사가 찾아와 “내일 산 정상으로 오너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수도사는 일찍 일어나 산을 바라보았는데, 산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쁘면서도 경외심에 찬 마음으로 산꼭대기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얼마쯤 갔을 때, 그는 길가에서 한 남자가 가시덤불 속에 빠진 채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도사는 “죄송합니다. 저는 좀 바쁩니다. 하느님과 약속이 있어서요.”라고 대답하고는 가던 길을 계속 서둘러 갔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그는 한 여인이 아픈 아이를 안고 울면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아이가 아파요. 이 아이를

같이 옮겨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수도사는 이번에도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산 정상에서 하느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는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걸음을 더욱 재촉하였습니다. 그런데 길은 점점 더 험해졌고, 마침내 지치고 목마른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물병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지쳐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아래 샘에 가서 이 물병에 물을 좀 떠다 주시겠소?”

그러자 수도사는, “어르신, 잠시만요. 저는 하느님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에 늦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다시 길을 재촉하여 마침내 산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하느님과 만나기로 했던 오두막으로 갔는데, 그 문에는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 이곳에 올라오는 길에 네가 도와주지 않은 이들을 돕기 위해 나는 간단다.”



전주 성모 안식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오는 토요일(8월 15일) 성모 안식 축일을 맞이하는 전주 성당의 정종혁 일라리온 신부님과 모든 신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중보로 항상 건강하고 나날이 영적 발전을 이루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8월 15일(토)

성모 안식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광복절 대영광식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소 식

■ 전주 성모 안식 성당 성화 작업

지난 7월 3일부터 31일까지 전주 성모 안식 성당의 벽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작업으로 지성소와 성당 동쪽 부분 전체에 성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성화를 그려야 하는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이었지만, 하느님의 축복과 성모님의 중보로 모든 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 출신 성화 작가들과 한국과 대만 출신 보조자들의 전문성과 열정, 그리고 성당 내부 준비를 비롯해 성화팀의 식사와 이동 등 전체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정종혁 일라리온 신부님과 이언주 데스피나 사모님, 여러 신자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함께 해 주시고 힘써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에티오피아 공동체 행사

지난 주일(2일) 오후, 국내 거주 에티오피아 공동체의 ‘아가페’ 행사가 서울 성당 선교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약 100명의 에티오피아인이 참석했습니다.

■ 대교구 초중등부, 신데즈모스 여름 수련회 종료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춘천 성 보리스 성당에서 초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라는 주제 아래 사도들, 사도 대등자들, 순교자들, 어린이 순교자들, 신앙고백자들, 수도자들, 자선 치료자들을 수호성인으로 삼아 조를 구성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복음말씀과 성인들의 삶을 배우며 일상에서 신앙을 실천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익혔습니다. 30일에는 대만과와 고백성사에 참여했으며, 31일에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조경진 예레미야 신부, 박인곤 요한 신부의 집전으로 성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계곡 물놀이, 아이스 스케이트, 레크리에이션과 다양한 놀이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신데즈모스 청년회 여름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세례신자와 예비신자를 포함해 60여 명이 참가해 성경 봉독과 강론, 토론, 대화를 통해 일상 속 영적 삶과 신앙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또한 고백성사와 성찬예배를 비롯해 조과와 만파, 성모님께 드리는 소기원 의식 등에 참여하며 정교회의 풍성한 전례와 영성을 체험했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는 운영진과 봉사자,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한국을 비롯한 15개국의 청년들이 함께한 것을 언급하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민족적·문화적 차이를 넘어 교회의 일치성을 우선하는 것이 정교회와 세계 총대주교회의 정신임을 되새기셨습니다.